

투데이 칼럼

트럼프 관세협박 이유와 실체

미국의 경상수지(수입과 수출) 적자는 2024년 약 1조 1300억 달러(158조 8,200억)인데 올해는 1분기에만 4,500억 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50%가 상승했습니다. 이런 적자증가는 미국의 경제위기를 증폭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악처방을 한 것이 수출 흑자국이 큰 나라부터 대미 직접투자 또는 관세를 높여 그 돈을 적자감소에 쓰겠다는 취지입니다. 미국의 적자누적 원인은 여러가지인데 가장 큰 요인은 미국내 제조업체(제조물) 감소, 부족 만림이나 해외수입이 크게 늘어난 까닭입니다. 이는 연간 무역수지 적자가 51억 달러인 필라핀의 경우, 자국 제조업이 저조, 공산품 수입이 65%를 넘는 사례도 이와 비슷합니다. 더 큰 문제는 기술직접이 높은 산업일수록 미국내 제조업에 투입될 기술인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공장을 설치해도 자국민만으로 감당이 부족한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제조업체수는 1,280만개지만 이중 상당수 업체가 최고 20%까지 인력부족을 겪고 있어 일자리 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관세라 해서 타당한 처방이 아닙니다. 관세협정은 '상호관세'이기에 미국이 수출 상대국에게도 같은 관세를 물지만 미국은 수출이 상대적으로 적기때문에 적자를 줄이겠지만, 관세만림으로 수입품 불가는



홍민기
수필가

모두 미국시민이 부담해야 하기에 실제 관세를 물어내는 사람은 미국정부가 아니고 시민이라는 점입니다. 실제 미국내에서는 트럼프 취임 후 자국 생산물 외 수입물건 가격은 대폭 상승, 아이폰(중국산 생산)등은 오르기 전에 사려고 품절 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와 검토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3,500억 달러의 대미 직접투자와 상호관세 15%를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직접투자입니다. 이 직접투자액은 미국에 예치, 미국정부가 주관으로 필요한 투자부분, 장소를 지정, 사용하고 그 이익도 투자액 회수가 끝날 때까지는 이익배분을 50대 50, 회수가 끝나면 미국이 90%를 갖겠다는 완전 손안대고 코풀겠다는 낯강도 방식인 것입니다. 일본은 이런 미국의 요구를 이면 계약으로 7천억달러를 사인(이

시바 총리), 사인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과 달리 문서작성, 사인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 외환보유고는 4,113억달러, 이중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예치하면 외환부족이 되기에 IMF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미국에 한국돈을 미 은행에 예치, 이에 상응한 달러를 언제든지 쓸수 있는 통화스와프를 요청했으나 미 정부는 이미지 목 실했습니다(일본은 미국과 협정되어 있음) △한국의 대처방안 그럼 한국은 미국의 낯강도 같은 요구에 어찌란 말인가? 미국의 어느 경제전문가가 한 말이 정답이라 생각됩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미국의 직접투자 요구에 응하는 적하면서(기업은 미국에게 필수인력 수백명 비자유구하고, 현지건설은 손해를 감수하며 장기 지연작전, 수백명 별도 비자유구

는 이만국의 반대로 현실적 불가, 만일 한국요구 수용시 일본 등 타 국가에도 동일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부담), 관세 25% 증가를 수용, 관세수용시 연간 7조~9조 손해를 감수하며 10년을 버텨도 100조 미만으로 직접투자 요구액 470여조보다 월등히 적은 액수이며 외환위기 우려도 없습니다. 설혹 트럼프가 이에 격분 25% 이상의 관세를 요구해도 직접투자보다 낮습니다. 직접투자의 문제는 부족한 현지 기술자와 낮은 기술력, 최저 시급 2만 2천원을 훌쩍 넘는 높은 인건비와 복지비, 아시아인 3%미만에 비하여 최고 9%를 넘는 제품불량률(낮은 노동의 질), 기타 잦은 이직률과 근태문제, 노조활동은 기업활동을 대단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한국 대기업이 설립한 많은 공장들이 있는데 공식적 발표는 없지만 규모에 비하여 수익률은 낮으며 그나마도 한국에 송금하지 않고 그곳에 재투자하는 방식이 되어 한국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직접투자는 미국의 압박과 타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줄이기 위한 방책이 아닙니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우위적 위치로 돌아선 조지아주 한국 근로자 체포, 수용사건은 현지 근로자의 신분이나 위협의 상황을 노출시켜 미국 요구의 불완전성, 신뢰성에 먹칠이 되었습니다.

사설

대한노인회 시니어포럼

대한노인회는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시니어포럼에 이어 부산과 전주에서 제2, 3차 시니어포럼을 각각 개최했다. 대한노인회가 교령사회를 선도하는 존경받는 어르신 단체로 도약하기 위해 마련된 2025년 시니어포럼은 특히 회원배가운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광주, 전북 전남을 대상으로 한 제3차 시니어포럼은 9월 5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개최됐다. 김두봉 전북연합회장을 비롯 광주연합회장, 전남연합회장과 산하 지회장들, 사무처·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종근 회장은 노인연령 단계적 상향, 재가(在家) 일종제도 추진, UN데이 공유일 재지정, 인구부 신설, 국가주택정책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최근 '회원배가운동'에 한마음 한뜻으로 열성적인 지지와

모범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노인복지 증진, 삶의 질 향상 등 어르신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더욱 나은 노인 복지정책을 개발해 1천만 노인을 대표하는 단체로 거듭나고 있다. 대한노인회 복지지원본부 김주호 본부장은 대한노인회 회원 배가 운동 4개년 계획을 설명했다. 2029년까지 회원영입 연도별 47개년 세부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사회 저명인사 회원 영입을 적극 추진하고 65세~74세까지, 75세 이상으로 연령대를 구분해 각각의 특성에 맞는 연령대별 맞춤형 회원 영입 전략 개발, 회원 영입 확대를 위한 목표량 및 인센티브 부여, 회원 배가운동 우수연합회, 지회, 경로당, 우수 직원 평가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울산연합회 경로당광역지원센터장은 '회원 배가 우수사례'를 발표

대야 새창이 이음 한마당

전북지치도 김제 만경강 대한민국 지도공원에서 지난 8월 30일 '제2회 대야·청하 새창이 이음 한마당잔치'가 성황리에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이번 행사는 '청하사랑발전연합회'와 '대야새창이연꽃마당축제위원회'가 주최하고 전북문화관광재단과 지역 문인협회 후원으로 이뤄졌다. 특히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김제 청하면과 군산 대야면 주민 간 화합을 이루자는 목표로 마련됐다. 올해 예술제 슬로건은 '새만금 사업 꽃 피우자'였다. 김제 청하면과 군산 대야면 주민들이 함께 예술을 통해 지역 간 갈등을 넘어서는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과 공연은 물론, 장기 자랑과 문학지 배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하며 화합

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참가자들에게는 한국문인협회 김제시지부가 발행한 '김제문학 제31호'를 증정했다. 기념식에서는 지역 발전에 기여한 김동구 전북도원과 조중만 장로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이어진 공연에는 풍물단, 밸리댄스, 기타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양혜원 기획위원장은 "김제와 군산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는 뜻깊은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됐다"라면서 "새만금사업을 두고 촉발된 갈등이 이번 행사를 통해 화합과 소통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발판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 주민들은 예술제를 통해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고, 2030년까지 새만금 인프라가 완성될 때까지 두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합동 기자회견하는 日 자민당 총재 후보들



23일 도쿄 자민당 당사에서 열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후보 합동 기자회견을 앞두고 다섯 명의 후보가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 모테기 도시미쓰 전 외무상, 하야시 요시미쓰 관방장관,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업상.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다음 달 4일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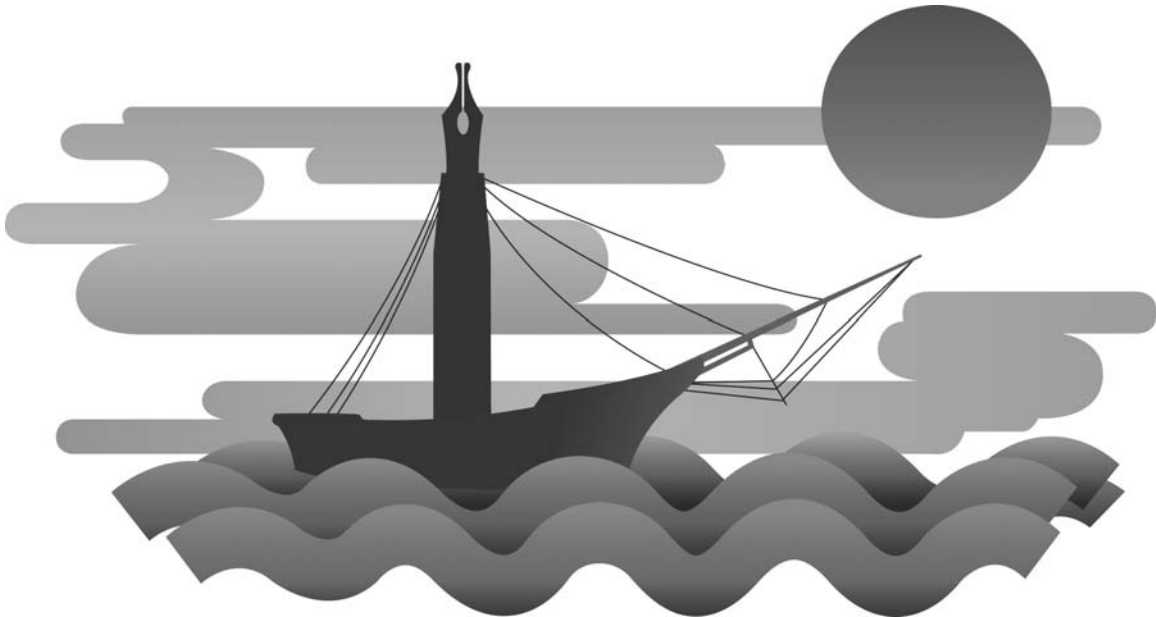
“가자지구 전쟁 반대”



22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하는 전국 총파업 시위가 열려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인종학살'이라고 쓰인 팔치마를 들고 행진하고 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